

韓國民家의 類型別 分類

金 鴻 植

우리나라 民家의 平面構成은 크게 외통집, 양통집, 곁집, 곱은자집 등 네가지 형태로 나뉜다. 그 중 곱은자집을 제외한 나머지 집들은 이것과 비교하는 의미에서 一字집이라고 통칭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곱은자집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一字집이란 오양간이나 벽장이 덧달려서 평면 모양이 7자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지붕의 용마루가 一字로 생긴 집을 말하고, 곱은자집(꺾음집)이란 평면 모양이 7자임은 물론이고 지붕의 용마루가 7자이어서 회침끝이 형성된 집을 말한다. 회침끝에는 빗물이 모이기 때문에 초가로서는 상당한 취약점이 있고 내부의 구조 처리도 꽤 복잡하므로 기와집이나 부잣집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초가집으로서 곱은자집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집의 안채 하나만을 본다면 위에서 분류한 형태와 같겠지만 사랑채, 행랑채, 헛간채 등이 함께 배치되면 그 배치 모양이 여러가지가 되므로 해서 평면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띤다. 어떤 지역에서는 안채에 사랑채를 곁드는 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행랑채만을 붙이는 수도 있고 또는 안채만으로 구성되는 수도 있다. 또한 상류계층들은 집을 지을 때 아예 큰 집을 짓는 경향이 있으며 하류계층들은 자그만 안채에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헛간채나 사랑채를 덧붙이는 방식을 쓰게 된다. 그리고 농작업의 방식에 따라서 앞마당, 뒤안, 바깥마당 등이 엄연하게 구분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바깥마당은 공동의 마을(타작) 마당을 이용하는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농작업 자체가 작업공간으로서의 바깥마당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여건은 어떤 지역의 기후적 요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 마을에 있어서도 확연

히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민가 유형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민가의 평면 형태는 계층에 따라 몇가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며 또한 이것이 건축된 시기에 따라서도 그 모양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가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북부형이니 서부형이니 하여 지역적으로 나누거나 그것의 경제적 여건이 아닌 기후적 여건에 연결시켜서 분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근대화 되어 가는 현재의 민가에 있어서 이러한 학문태도는 未來指向的이라기보다 과거의 회고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1. 외통집

외통집은 집의 모양이 一字 형태로서 용마루 아래 방들이 한 줄로 배치된 집을 말한다. 구조적으로는 맞걸이 3량집, 전퇴집, 전후좌우퇴집이 있는데 이 가운데 전퇴집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이고 맞걸이집은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 지방에 꽤 널리 퍼져 있으며 이것을 찻집이라고 부른다. 전후좌우퇴집은 사대부집에만 쓰이는 구조이지만 18세기 말 이후에는 민가에서도 삼남지방에서 중농계층의 집으로 상당히 널리 사용되었다.

외통집은 대개 한 채로만 구성되는 경우는 드물고 안채+헛간채, 안채+사랑채+헛간채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을 각각 쌍채집, 세채집이라고 부른다. 외채집은 전에는 외거노비에 해당하는 사람의 집이었거나 혹은 이제 막 독립한 가난한 계층의 분가한 집으로서 장차 경제적 여력이 생기면 쌍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초기단계의 집이다. 따라서 외통집들은 하류계층의 집이며 다만 전후좌우퇴집만이 그 집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외채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원래 중농계층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맛걸이집은 일반적으로 3칸집인데 4칸집도 드물게 있다. 이 집은 거의 외거노비계층이 살았던 것으로 믿어지며 독립적인 경리생활을 영위 했다가보다는 마을 부잣집의 부속사에 가까운 것이다. 이것은 태백산맥 줄기를 따라서 남하하는 산간내륙지방에 적은 수가 분포하고 있다. 특히 안동지방에서는 양통집과 더불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태백산맥 속에 존재했었던 화진민의 집도 이런 유형이 꽤 있었다.

퇴집은 3칸一字퇴집이 주류를 이루고 드물게 4칸一字퇴집이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칸집은 부엌을 제외한 모든 방이 구들이거나 가운데 마루를 시설하는 수도 있다. 이것은 부엌을 제외한 방 앞에 전퇴를 만들고 여기에 마루를 시설하여 퇴마루를 삼거나 아무것도 시설하지 않고 흙바닥을 이용하여 토방을 삼거나 한다. 이 곳은 작업공간이면서 방으로 들어가는 환풍공간이기도한데 중부지방에서는 뜨럭 또는 뜰판이라고 부른다. 보통 옷방 앞에 소죽을 꿰이는 큰 솔을 건 작업부엌을 설치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부엌이 필요치 않을 때는 옷방을 전퇴까지 키우는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안방 앞에는 토방을 만들며 여기에 경제적 능력이 허락하면 마루를 까는 것이다. (원래 이 마루는 들마루로서 편상처럼 이용하는 것이었는데 19세기 말에 오면 그 규모도 커지고 집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아마도 이러한 집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는 형태일 것이며 외거노비 또는 소작농들이 주로 이용했다. 이들이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키면 헛간채 또는 사랑채를 지어서 쌍채집 혹은 세채집으로 증축해 갈 수 있었다는 데 이 집의 큰 장점이 있었다. 이 집은 전국적으로 하층민의 집으로 널리 분포하는 것인데 특히 지배층과 피지배계층이 확연하게 구분될 수 있는 -토지가 비옥하여 경제여여가 많은- 지역 즉 태백산맥 서쪽의 평야지대로서 평안북도에서부터 삼남지방의 남해안에 이르기까지 널리 분포하며 그 숫자도 상당하지만 다만 다른 점은 북쪽으로 또는 내륙쪽으로 갈수록 폐쇄적이고 남쪽으로 갈수록 개방적인데 이것은 단순히 기후적 요소에 기인한 것이다.

3칸퇴집의 일종으로서 옷방을 나누어 사랑방이나 도장방을 두는데 이것을 각각 一字사랑방집, 도장집이라고 부르며 이것은 토지가 비옥하지 못한 지역에 분포하는데 전자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중부내륙지방에 드물게 퍼져 있으며 후자는 양통집이 일반적인 동해안지방에 있어서 가끔 보는 형태이다.

3칸퇴집에 헛간채 또는 사랑채가 곁들여 배치되면 쌍채집이 되는데 안채 맞은편에 배치될 때는 二(두이)字집, 안채 모에 배치될 때는 ㄱ자집이 된다. 헛간채는 보통 맛걸이 3량 3칸집이며 가운데는 헛간, 한쪽에는 오양간,

다른 쪽에는 사랑방이나 광이나 수렛간 등이 만들어진다. 헛간채에 방이 놓였을 때는 사랑채가 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헛간채가 된다. 이들의 분포 역시 앞의 퇴집과 같은데 외채집과 다른 점은 농촌경제에 필수적인 경리시설을 갖춘 집으로서 앞서보다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소작농계층의 집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서해안, 남해안 등 북에서 남에 이르기까지 주로 해안 가까운 지역에 많이 분포한다.

쌍채형에 보다 경제적 여유가 더해지면 집을 하나 더 지어서 ㄷ자형태의 집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집이 모두 一字인 집은 세채집 혹은 一字ㄷ자집이라 부르며 안채가 곱은 자이고 행랑채는 一字인 집이 결합된 것은 ㄷ자집이라고 부른다. 이것들의 평면구성은 각각 3칸전퇴집을 기준으로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으며 안채에 부속사가 배치된 방법, 즉 안채의 양 옆에 날개처럼 배열되는 경우와 맞은편 및 그 옆에 배치되는 경우 등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아주 예외적으로는 행랑채가 ㄱ자집으로 안채인 一字집과 더불어 ㄷ자 모양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후자는 전통적 법식에서부터 해방되기 시작하던 19세기 말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세채집에 행랑채가 곁들여서 네채집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ㄷ자 모양을 이루며 세채집이나 네채집 모두 3칸一字퇴집이 분포하는 곳에 분포하지만 그 수는 극히 드물고 전통성이 강한 지방 또는 하층민으로부터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지방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집이 세 채 혹은 네 채로 구성되는 집들은 외통집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나 겹집과 양통집에서도 이렇게 여러 채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겹집과 혼용되고 있는 삼남지방과 제주에서는 이런 방식이 널리 쓰이고 양통집이 일반적인 안동에서도 집이 두 채 내지 세 채로 구성되는데 여기에서는 특이하게 ㄷ자나 ㄱ자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형태를 띤다.

2. 양통집

양통집은 한 용마루 아래 방이 두 줄로 배치된 집을 말하며 구조적인 특징은 3평주 5량 혹은 3평주 3량집으로서 반드시 집 가운데 기둥들이 배열된 집을 말한다. 이러한 집들은 주로 함경도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여기에서는 양통집이라 부르며 남한에서는 일부 분포하고 이것을 겹집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중부지방 일부에서는 두 줄백이집이라고 부르는데 학술적인 의미에서 뒤에 설명코자 하는 겹집과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 이북 지방의 말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뒤에 설명하는 겹집과의 커다란 차이는 구조에 있어서 겹집이 2고주 7량 혹은 1고주 5량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지붕이 우진각으로 많이 처리되는 데 비해서 양통집은 함각지붕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

이다. 한편 외통집의 전후좌우퇴집과 다른 점은 양통집이 칸수가 같은 방들을 앞뒤로 놓는 데 비해서 퇴집은 가운데에 한 칸 크기의 방을 놓고 앞뒤로 반 칸 크기 즉 퇴칸을 배열하는 점이다.

평면은 원래 田字의 평면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나 지금 현재는 남아 있는 것이 없고 이와 비슷한 것은 제주도의 2칸 막살이집과 昇州郡의 田字집이 있다. 전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곁집에 가까운 것이며(특히 구조가 2고주 7량으로서 양통집과는 다르다) 후자는 완전 양통이긴 하지만 평면구성에 法則性이 없어서 그것의 生態의인 근원을 밝히기가 곤란하고 오히려 서부해안 지방에서 발달한 곁집이 양통집과 결합하는 형태로서 탄생한 것이라 믿어진다. 이러한 田字의 평면은 현재 제주도와 남부해안 지대에만 소수 존재하며 과거에는 가장 빈한한 하층민의 주택으로서 남북을 막론하고 널리 분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싶다. 집들은 따로 부속사를 갖지 않는 것이 특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지처럼 다른 집에 완전히 종속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소작농이거나 어민의 집이라고 생각한다. 제주도나 남부해안은 땅이 척박했기 때문에 잉여생산물이 적었고 대신 개간할 수 있는 넓은 땅이 있었으므로 생산력이 저급했던 17~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또한 이것은 문자 그대로 막살이집으로서 임시방편으로 막 지은 집이라는 뜻이며 근자에는 제주 4·3사건 이후에 많이 지어졌고 지금 남아 있는 집들은 대개 이 시기의 집으로 보는 것이 틀림없다. 한편 후자는 가게라는 특수한 기능을 갖거나 사랑채 등의 집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양통집의 전형적인 형태는 6칸양통으로서 영동형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 역시 여러가지 형태가 있지만 가장 많이 보이는 평면구성은 중앙 앞쪽으로 마루를 까는 것이며 이곳에 온돌이 들어서는 것은 마루방이 온돌로 변화하는 일반적인 추세의 하나로서 17~8세기 이후라고 믿어진다. 이러한 평면 형태는 태백산맥 동쪽 동해안 지방인 원산에서 울진 사이까지 일반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것의 변형된 형태로서 중부내륙의 산간지방이나 서해안 또는 경남 창녕지방에서도 드물게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다른 점은 영동형이 외부로부터 폐쇄적인 형태라고 한다면 타지방의 것들은 전면 벽이 없는 개방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으로서 이는 기후관계인 겨울의 눈과 연관된다고 생각된다. 영동지방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인 평면 형태이므로 자영농계층의 집이지만 다른지방에서는 모두 가난한 사람들의 집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특색은 태백산맥을 따라 내려가는 산간지대이거나 아니면 바다에 바로 면한 해안지방이라는 점이 같다고 볼 수 있겠고, 대개 부속사가 없으며 담장도 뒤안을 중심으로 뒤안에만 따로 치지는 수가 많다.

6칸양통집의 다른 형태 가운데 하나는 안동형인데 이것은 그 맥락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독특한 것이다. 이중 가장 고전적이고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은 평면 구성을 갖는다. 가운데 앞으로 봉당을 놓고 뒤로 마루를 배치하며 한쪽으로는 부엌과 안방, 다른쪽으로는 마굿간과 상방을 배열한다. 마굿간 위에는 다락이 시설되는데 19세기에 들어와서부터는 마굿간이 외부로 나가고 여기에 상방이 설치되며 뒤쪽으로 고방이 만들어진다. 이런 집은 안동지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주변지방에서는 드물게 보는 형태인데 경기도 서해안 혹은 제주도에서도 이와 같은 평면이 있다. 안동지방에서는 19세기 이전에 지어진 상류계층의 집들이 대부분 이러한 형태를 지니며 여기에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대부분 거리채(사랑채와 유사하며 거리방, 광, 고방 등이 있고 이것이 안채에 가까이 붙어 있음)를 두며, 보다 여력이 있으면 행랑채를 따로 만들었다. 이 지방에서 19세기 이전의 하층민 집들은 맞걸이집이었고 상류계층은 양통집이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상류계층들이 7자집 혹은 확대된 양통집으로 발전해감에 따라 현재는 이런 형태의 집을 하층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제주형집은 특히 작은방이 있는 3칸집(한칸형)의 경우 안동형과 비슷한데 그것의 구조, 평면 구성의 맥락 등으로 미루어 봐서 곁집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설명한 6칸양통집이 확대되면 8칸 내지 10칸양통집이 되는데 이것들이 크게 구분되는 점은 부엌 안에 정주간이 있는 것과 없는 점이다. 정주간이 있는 양통집은 함경도 지방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중농 즉 자영농 이상의 계층의 집이며 대농계층의 경우에는 二字 정주간이 있는 양통집이 되면서 부속건물을 갖게 된다. 이 경우에도 부속건물은 다른 집과 마찬가지로 외통집이고 맞걸이 3량 구조이다.

정주간이 없는 양통집은 정지(부엌+봉당)가 맨끝에 붙어 있는 경우와 정지 바깥쪽으로 고방과 방앗간 등이 있는 경우(방 구성은 각양각색)로 대별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부엌을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지는 자영농계층이 두텁게 형성된 동해안, 남해안의 도서지방 등 우리나라 해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이다. 전자는 농업을 주로 하는 산간지대에 많으며 양통집이 분포하는 강원도지방에 많다. 이러한 양통집들은 동해안의 경우 자영농계층에서 출발한 부농들이 거거하는 집이고(대농들은 이것과 전혀 다른 평면 형태를 가지며 서울지방의 것과 비슷하다) 내륙산간지방의 경우에는 경기도쪽에 가까울수록 자영농계층이 이용하는 집으로서 이 때 부농들은 경기도식의 곱은자형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양통집들은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전국적으로

새로 지어지는 집-자영농에서 부를 축적하여 부농이 되는 사람들의 집-에서 크게 환영을 받았으며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남부지방의 곁집과 쌍벽을 이루어 널리 분포하였다.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규모만 컸지 집안의 노동력을 많이 요구하고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곱은자집과 결합하면서 도시의 6칸양통집을 탄생시키고 있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곁집도 아니고 양통집도 아닌 형태이기는 하지만 크게 보아서 양통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시에서 크게 환영을 받고 있고 특히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집장사들의 집이나 아파트 평면구성은 모두 이것에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약간의 지방적 특색이 가미되면서 전체적으로 통일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행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에도 기인하는 것이겠지만 반드시 그것만도 아닌 다른 요소 즉 그러한 경향에 대한 민중적 요구도 작용하는 것이라고 믿고 싶다.

6칸양통집의 발전 형태 가운데 또 하나의 형태가 사방집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건물의 측면 즉 건물의 합각부분(까치구멍)으로 대문이 나 있는 집이다. 이것은 사방 어느쪽에서 보더라도 3칸집이기 때문에 사방집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9칸 내지는 12칸사방집이 있으며 가운데 공청 또는 대청을 중심으로 평면이 구성된다. 이것은 황해도와 강원도의 접경인 광주산맥을 중심으로 산간지대에 분포하며 그곳에서는 부농계층에 속하는 집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 숫자는 그다지 많지 않고 현재는 별로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필자가 조사한 바와 같이 가계집(양평군 서종면 노문리)이라는 특수한 기능을 갖거나 충북(괴산군 청안면 운곡리)에서처럼 산간지대의 화전민과 연관을 가진 집일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집들은 태백산맥 화전민들의 집에서 자주 볼 수 있었고 현재도 강원도 신리에서 볼 수 있다.

사방집은 가운데 대청 부분에 통풍과 채광이 일체 되지 않아 너무 비위생적이었으므로 집 가운데 구멍을 뚫어 햇볕이 들게 한 집이 있는데 이것을 파리집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9칸파리집, 12칸파리집이 있으며 이것보다 더욱 규모가 커지면 대농계층의 □자집이 되는 것이다. 9칸파리집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설명코자 하는 곱은자와 유사하다. 이 집은 강화도를 중심으로 한 중부 서해안지방에 소수 분포하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이며 가장 가난한 계층의 집이거나 지은지 오래된 집인 경우가 많다. 대개 이와 같은 내부 폐쇄적인 형태는 치안이 불안한 산간 또는 이것과 연결되는 해안지대에 많았으며 주민과 대화를 해보면 이 집이 도둑을 막기 위해 많이 지어졌으며 특히 구한말과 같이 치안이 불안한 시기에 널리 유행한 형태로 보여진다.

3. 곁 집

곁집이란 一字집으로서 한 용마루 아래 방이 일부는 두 줄로, 일부는 한 줄로 배치된 집을 말한다. 즉 가운데 칸들은 앞뒤에 퇴를 두어서 방들을 한 줄로 배치하고 양쪽은 퇴 없이 상하로 방들을 배치하는, 외통집과 양통집이 혼용된 집을 말한다. 이런 집의 구조는 대략 2고주 5량

혹은 제주도의 경우와 같이 2고주 7량의 집도 드물게 분포한다. 충청도지방에서는 이 집을 두줄백이집이라고 부른다. 이것과 양통집 및 외통집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한 바 있지만 외통집의 전후좌우퇴집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들은 구조 방식이나 방의 배열 기법이 비슷하며 분포지역도 남부내륙지방으로서 서로 겹친다. 그러나 다른 점은 곁집의 경우 대개 전면이 4칸으로서 가운데 대청이 있고 맨끝의 방이 상하방으로서 사랑방으로 이용되는 데 비해서 전후좌우퇴집의 경우는 대개 3칸집이고 대청이 없으며 맨끝의 옷방이 하나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대신 뒤에 설치되는 골방이나 전면의 뒷마루는 일반적인 것보다는 큰 경향이 있으며 특히 옷방옆의 뒷마루는 상당히 커서 5자 내지 7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 와서 이 길이는 커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 칸(대략 8자)을 넘게 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집에는 먼저 2칸곁집이 있는데 이것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남해안에 분포하며 집의 평면은 앞서 설명한 양통집의 卍字 모양과 비슷하나 구조는 양통집(이것의 구조는 3평주 5량이 대부분이고 대개 구들 위에는 고미를 얹은 천정을 하여 2층 지붕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과 달라서 5량 내지 7량이다. 2칸 막살이 곁집형은 평면이 卍字 형태로서 부엌 안에 고방이나 마굿간이나 마루를 두는 모양으로 구분된다. 분포지역은 제주도에 상당수 있으며 남해안지역에서도 드물게 보인다. 이용하는 계층은 대단히 빈한한 계층으로 남해안을 제외한 이북의 3칸외통집과 마찬가지로 주로 소작농계층의 집이다.

제주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3칸집으로서 그 모양은 부엌 안에 작은방이 있거나 작은방이 없는 것으로 대별되는데 중앙에 대청을 두고 한쪽에 상하로 구들과 고방을 두었다고 해서 넓은 의미의 곁집으로 보는 것이다. 분포는 제주도 전역에 걸치며 북쪽에는 작은방이 없는 3칸집이 많은 편이다. 이 집은 자영농계층의 집으로서 단독으로 쓰이지는 경우는 드물고 반드시 부속사가 덧붙여 지는데 부속사만 있는 집은 역시 소작농 내지는 약간 가난한 자영농계층의 집이고 대개는 안거리와 밖거리라고 하는 쌍채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밖거리에는 방 하나와 헛간, 마굿간 등이 놓이는 것이 보통이다.

제주도에 있어서 4칸곁집은 부엌 안에 작은방과 식당으로 이용되는 셋방이 상하로 배치되는 집으로서 이 곳의

상류계층이나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한 자영농계층이 많이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이 집은 한 채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바깥채와 목거리라는 부속사를 두는 경우가 많다. 바깥채에는 대개 대문간이 놓이고 농촌에서는 대문(대문 시설이 없는 올래라는 출입구)이 따로 시설되는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4칸집은 소위 읍이라고 불리는 도시에서 흔히 보여지는 평면 형태이다.

겹집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예는 삼남지방에서 보이는 것으로 부엌, 큰방, 대청, 사랑방의 순으로 배열되는데 부엌은 정지방과 부엌으로 상하가 나뉘고 사랑방은 상하방으로 나뉘며 대청과 안방 앞에 퇴마루가 놓이는 형태이다. 이러한 집이 변형되어서 여러가지 형태의 겹집이 나타나며 남해안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기본적인 겹집의 맨끝에 붙어 있는 사랑방이 부엌의 바깥쪽에 이어져서 부엌을 중심으로 방들이 배열되므로 고용인이 없는 자영농계층의 집에서 불을 쉽게 났을 즉 주부의 동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고안된 형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겹집 형태는 남해안의 도서지방과 제주도에 분포하는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이런 집들이 두 채 혹은 세 채, 경우에 따라서는 부속사까지 포함하여 네 채가 구성되는 예가 많으며 이 경우 대략 ㄇ자 모양을 이루지만 육지의 집과 달라서 안마당만 있을뿐 바깥마당은 존재치 않고 대신에 뒤안 공간이 크게 발전하여 이곳에는 부엌 또는 대청에서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공간 개념은 양통집의 공간 개념과 비슷함을 알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안마당이 집안에 있는 것과는 달리 후자의 경우는 안마당이 바깥마당으로서 완전히 외부에 공개되고 뒤안만은 경리시설의 중심지로 이용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부에서는 해안으로부터 약간 들어가는 내륙지방에서는 겹집이 보통 단독으로 쓰이며 가끔 부속채가 수반되는 경우가 있으나 살림채만은 안채 하나에서 단독으로 이용되고 최근에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농촌주택에 있어서 一자집의 형태는 대략 겹집의 모양을 취하는 것이 많으나 다만 퇴마루 앞에 유리창을 달아서 추위를 방지하고 대신 앞마루가 약간 커지는 경향이 있다.(규모가 커지는 경향은 일반적인 것이고 보통 한 칸의 크기 개념이 전에는 8자에서 지금은 10자의 경우까지 확대됨을 알 수 있다.)

4. 곱은자집

곱은자집은 7자집을 말하는 것으로서 평안도지방에서는 꺾음집이라고 부르는데 충청도 용어인 곱은자를 학술 용어로 쓰기로 한다. 7자집이란 말은 최근 20세기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것으로 7자집이라고 부르고 있는 지방에서의 곱은자집은 20세기 이후에 지어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다.

곱은자집이 외채로 지어지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며 장차 사랑채 혹은 행랑채를 짓기 위한 임시적인 현상이다. 표준적인 형태는 가운데 대청을 두는 5칸곱은자 형태인데 그 밖의 여러가지 변화된 것도 있다. 즉 오양간이 몸채 밖으로 빠져 나온 오양간 곱은자 집과 가운데 부엌을 두고 양쪽으로 살림방을 배치하는 가운데 부엌집, 그리고 5칸대청집에 살림방들이 증가된 6칸 내지 7칸 가운데 대청집들이 있으며 남해안지방에는 대청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엌이 가운데 위치하는 특이한 형태도 있다.

오양간 곱은자집은 강원도 산간지대에 꽤 분포하는 것으로서 부엌에서 오양간이 곱은자로 덧달린 형태일뿐 오양간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의 계층 구분이 불가능한 자영농계층의 집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 오면 오양간이 몸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것은 약간 오래된 형식이라고 생각된다. 가운데 부엌집은 삼남의 내륙지방에 드물게 분포하여 역시 자영농계층의 집이라고 볼 수가 있다. 가운데 대청집은 살림방이 증가된 형태이건 아니건간에 모두 중부지방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주택평면에 있어서 간판격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다. 이 집 역시 자영농계층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것들은 대부분이 다음에 설명할 ㄷ자형식을 이룬다. 가운데 대청이 없이 구들로만 형성되는 중앙구들집이 있는데 이 집은 중부내륙지방에 드물게 분포하고 6·25전후의 임시적인 건물로 나타났던 것 같다. 대청이 있는 가운데 부엌집은 남해안지방의 특수한 형태로서 앞서 설명한 곱은자집과는 사실 그 맥을 전혀 달리하는 평면형태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러한 곱은자 외채형집은 전국에 걸쳐서 널리 분포하며 그 평면형태도 다양하고 주로 자영농계층 가운데 상류층이 이용하는 집이라고 볼 수 있겠다

ㄷ자형태는 곱은자집 안채와 一자형 사랑채 또는 행랑채로 구성된 집으로 안채는 대략 5칸 가운데 대청집이고 사랑채는 맞걸이 3칸집이다. 여기에 대문간을 내는 경우와 대문을 따로 시설하는 경우가 있겠는데 이들은 모두 태백산맥 서쪽의 중부지방에 꽤 많이 분포하며 역시 자영농계층의 집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형태 가운데 ㄷ자집이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 서해안지방에 집중적으로 꽤 분포하며 ㄷ자의 터진 곳을 전면으로 삼는다. 이것은 그 맥락을 찾아본다면 파리집의 전면 부분이 없어진 형태이고 이러한 집들 앞에 一자행랑채를 배치하여 ㄷ자형을 이루는 형태는 경기도와 안동지역에서 매우 드물게 보는 것이다.

ㄷ자형집은 가운데 안마당을 중심으로 집이 ㄷ자로 구성되고 앞쪽에 대문간과 바깥마당이 구성된 집을 말하는데 이것을 경북에서는 뜰집이라고 부르고 경기도에서는

ㅁ자집이라고 부른다. 도시 또는 사대부집은 형태가 약간 변형되어 之字 모양을 이루기도 하는데 이러한 집들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특히 도시지역에 널리 분포되었던 것이며 지방에서도 안동에는 유달리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ㅁ자집에 一자 행랑채가 덧붙여져서 므차 이상의 형태가 되면 이것은 사대부집이므로 여기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토호 내지는 대농계층의 집들만 취급한다. 개성지방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ㅁ자집은 사실은 ㅁ자집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파리집으로 보여진다.

ㅁ자집 가운데 가장 형태가 많은 것은 곱은자 두 채가 형성되어 ㅍ자집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들의 안채 평면구성은 가운데 대청을 중심으로 하는 곱은자집으로서 대략 비슷하고 다만 사랑채만이 다를 뿐이다. 사랑채는 대문간의 유무, 대문간이 대청을 향하는 경우와 부엌을 향하는 경우 혹은 대문간을 꺾어지게 만드는 경우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것은 주변의 산세, 대지조건, 안채의 방위, 나아가서는 집주인의 운세에 따라서 결정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집들은 중부지방에서 꽤 많이 분포하며 대농계층의 집

이고 더욱 살림이 증가되었을 때는 바깥마당 옆에 一字型的 부속채를 갖는 경우가 많다. 기타 지방에서는 대단히 드문 형태이고 사대부 내지는 대농계층의 집에서 이용되는 형태이다. 그 이유는 대농들의 집이 다분히 개인적 취향이 강조되므로 중부지역에서 널리 유행하는 ㅍ자집을 모방하여 짓는다는 것은 서울과의 연관관계를 항상 가지고 있는 사대부를 제외하고는 흔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집들이 도시에서 나타날 때는 서민주택으로서 ㄷ자집이 가장 많고 부잣집으로서는 乙字집, 卍字집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20세기 중반 이후에 발생한 도시형식의 신형과 맥락을 갖는 것이다. 신형은 근본적으로 양통집이긴 하지만 집의 모양은 대략 ㄱ자 모양이 많고 특히 안방이 마당 앞으로 빠져나오는데 이것은 ㄱ자집이 채광과 통풍에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믿어진다. 따라서 장차 아파트 평면도 一자집에서 ㄱ자집의 집합으로 변해갈 가능성이 많다고 필자는 주장하고 싶다

(금성종합건축)